

해피밀 시즌 6-5호를 발간하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성경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즌 6-5 해피밀을 통해 묵상하게 되는 역대하와 에스라, 느헤미야의 말씀은 죄로 인해 무너지고,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성전과 성벽은 허물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무너진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또한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신실하신 주인 되어 주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보이는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해피밀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참된 왕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무너진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붙드시며,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평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6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수원평안교회 담임목사 정재광

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 that reads 'Paul Jung'.

해피밀 시즌6 이렇게 활용하세요 :-)

오늘의 통독범위입니다.

모세오경 통독완성시 <모세오경 마블자석>을 선물로 드립니다.

2026.02.10(월)



창세기 1~4장

창조와 타락, 구원 계획의 시작(창 3:15)

오늘 해피밀 제목입니다.

오늘 통독범위의 핵심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세상의 시작, 이 세상에
의 원인이 어디에서 부터 오는지 말하고 있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뱀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 세상이 오염되어, 시기, 질투, 다
툼, 재해, 살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시작'에 대한 진술은 고대 다른 신화와는 완전히 독보적으로 다릅니다. 그
리스도 로마 신화를 보면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신인
제우스가 티탄과의 전쟁이 끝난 뒤 무료함을 느껴 생명체 창조를 계획했다고 말합니다. 프로
메테우스는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후 동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동생 에피메테
우스는 여기에서 매우 큰 실수를 하는데, 동물들에게는 강력한 재능들(이빨, 털, 날개 등등)
을 주었지만, 깜빡하고 인간에게는 재능을 주지 못하여, 인간은 가장 약하고 추위에도 취약
한 동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불쌍한 인간에게 신들의 '불'을 훔쳐다

오늘 해피밀 묵상 설교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인간은 실패작, 실수작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
나님의 인간창조는 독보적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뒤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십
니다. 인간이 온전히 살 수 있는 완벽한 생체를 구성하신 뒤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뜻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집에 오기 전에 부모는 분주하게 야간방을 꾸미기에 바쁩니다. 아기가 잘 살
수 있는 터전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인간을 완전하게, 실수
없이,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사랑함으로 창조하셨음을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대비되게 인간은 사탄의 말을 들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
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세상 속에 죄가 들어와 세상을 끔찍하게 오염시키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는 핵심 본문에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
나님의 마음이 들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뒷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짓밟을 것
이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죄와 사탄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야
기가 타락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묵상질문입니다.

묵상질문

1. 세상에 귀여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최대한 많이, 오랫동안 고백해보
세요.





역대하 13-18장

하나님을 찾으라(대하 15:1-2)

얼마 전 런닝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 발에 딱 맞는 런닝화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또 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면서 '런닝'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저의 런닝 라이프가 기대되었습니다. 또 런닝화 종류가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이 정말 특이한 발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런닝화를 찾으며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나의 진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사라는 아사왕에게 2절 말씀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찾으라는 말은, 감추어져 보이지 않는 것을 집요하게 발굴하는 것을 뜻합니다.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아름다운 것은 평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끈기있게 그 아름다움을 찾고 추구한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끈기있게 발견해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말한 것처럼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끈기있는 시간, 꾸준한 시간, 집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책상에 앉아 연구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런닝화의 이야기로 돌아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런닝화를 검색하고,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 런닝화를 실제로 신어보기 위해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머리로 알던 런닝화를 직접신어 보았을 때의 깨달음을 잊지 못합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 머리로 알았던 런닝화의 특징들을 저의 발끝과 발바닥, 발목에서 전율로서 살아나는데, 참으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분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분의 아름다움에 합당한 삶, 그 분의 뜻에 합한 바된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책상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의 모든 삶의 자락에서 전율로 살아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당신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지금 내 삶 속에 함께 동행하는 그 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묵상질문

1.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경건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2. 오늘 하루 발견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무엇입니까?





역대하 19-24장

페이스 메이커(대하 19:4-6)

런닝을 할 때에 페이스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런닝을 한지 얼마되지 않는 저의 입장에서 이 페이스 조절은 참 어렵습니다. 옆에 함께 뛰어주는 분이 페이스를 맞추어주면, 6km, 7km도 거뜬히 완주하지만, 혼자 뛸 때면 제 안에 있는 질주본능으로 인하여 4km도 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향과 가지고 있는 체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는데, 페이스 조절이 잘못되어 그저 넘어져버리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진취적인 왕입니다.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두고 평가하기를 "스스로 강하게 했다(17:1)"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의 진취적인 성향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과 친인척이 됩니다. 이것은 남유다에 큰 울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자 남유다의 여왕으로 끔찍하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사밧의 최선이 독이 될 것을 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호사밧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할 때, 여호사밧이 함께 듣게 하셨고(18장)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 규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최선이 오히려 악이었던 것을 깨달으며, 19장 4~11절까지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페이스 메이킹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론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향하여만 달려가려고도 합니다. 내가 가진 기질에 따라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이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최선이라는 덕스러운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리던 우리를 멈춰세우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주하던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의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십시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삶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와 일치하십니까?
2.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역대하 25-30장

손아귀에 붙잡혔을 때(대하 30:6)

누군가의 손아귀에 붙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저는 복싱을 배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복싱 조금 배웠다고 까불다가, 프로 복싱 선수와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스파링 같은 건 아니었고, 프로 복서가 자세 조금 잡아 위협을 준 정도였습니다). 프로 복서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저도 자세를 잡아, 제 자리에서 강종 강종 뛰며 날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프로복서는 저의 옆구리 쪽으로 파고 들며, 저의 스텝을 저지시키고, 덩치로 몰아붙이며 저를 코너에 몰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당황하여 어버버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강력한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것은 도무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는 6절 말씀과 같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앗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때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유다를 침공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 멸망 소식 그리고 갈 수록 강해지는 앗수르의 영향력은 분명 남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세상의 손아귀가 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지만, 분명 우리의 신앙을 주저하게 하는 세상의 손아귀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벗어나고 싶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돈 문제, 이 시대의 문화와 분위기가 우리를 붙잡고 흔들어 댈 때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함께 모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 유월절 절기 속에 담긴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셨던 그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장중의 손길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26~27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의 손아귀에게 버려진 채로 내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분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저주 속에 놓여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십니다. 출애굽 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삶의 부르짖음을 분명 듣고 계십니다. 그 분의 손길을 뺏으사 우리를 노예삼고 있는 악한 손아귀를 뿌리치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나를 휘어잡고 있는 손아귀는 무엇입니까?
2. 혹시 내가 누군가를 휘어잡는 손아귀는 아닙니까?





역대하 31-36장

파도보다 더 강한(대하 36:15)

제가 런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성실'하기 위해서 입니다.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지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여나 런닝을 통해 체력이 좋아진다면, 그래서 지구력이 좋아진다면 좀 더 성실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런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싶고, 성실한 사역자로 첫 마음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실함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이 찬양의 가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와서는 오느 정도 그 의미를 깨닫습니다. 찬양에는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도는 성실히 일합니다. 성실히 굽이칩니다. 성실이 바위를 부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그 성실함으로 무언가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은 강력합니다. 강력하여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지자를 보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다고 합니까? "부지런히"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신실히, 성실히, 부지런히 그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남은 것처럼, 그 분의 성실하심은 남유다 멸망과 바벨론 포로기를 넘어, 고레스 왕때에서 지침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포로귀환 시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오늘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의 딱딱한 마음도 능히 부수십니다. 우리 인생에 추운 겨울내에도 그 성실하심은 약해지지 않아서, 반드시 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삶의 포로기, 누군가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 고난의 때, 환란의 시간, 눈물의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그 분의 성실하심은 다함이 없어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존하고, 지탱하며, 마침내 봄을, 기쁨을, 해방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성실한 사랑의 확증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주셨던 원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 주님은 성실하고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사망의 손아귀에 있던 우리를 구출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누군가의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요즘 나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환란, 눈물은 무엇입니까?
2.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영혼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스라 읽기



에스라 1-5장

역사를 해석하다(스 1:1-3)

성실하신 하나님의 부지런하고 변개치 않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귀환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가능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1절). 그런데, 이 부분은 학계에서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고레스 왕이 분명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출토된 고고학 유물 중 '고레스 실린더'를 보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바사 국가의 절대신인 마르둑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고,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에게도 동일한 칙령 "고향으로 돌아가라"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스라가 역사를 조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는 진리 속에서 고레스의 칙령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레스가 마르둑의 이름으로 칙령을 선포하였어도, 에스라의 믿음과 관점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약속을 지키신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 많은 일들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사는 것, 또한 이러한 직장을 얻게 되어진 것,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한 섭리로 주어진 것이라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러한 해석을 보며 '정신승리'라고 폄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증거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스라도 그러한 증거를 기반삼아, 하나님께서 포로귀환을 허락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증거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칙령이 때맞춰 포로 생활 70년 만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보십시오. 그 분은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권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분의 고초당하심, 십자가를 지심, 이 모든 이야기 하나 하나 속에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작은 것 하나 섭리하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묵상질문

1. 오늘 나의 삶 속에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2.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손아귀에 붙잡혔을 때(대하 30:6)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지켜주시고, 마음 붙들 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경험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히스기야 왕은 민족의 위기 상황 속에서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에 앗수르라는 대제국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앗수르의 위협을 성경은 '앗수르의 왕의 손에' 잡힌 것과 같이 표현합니다. 이러한 때 히스기야는 유월절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유월절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즉, 그들은 다시 한번 앗수르의 손아귀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무언가의 손아귀에 잡혔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시험성적에 혹은 친구와의 관계에 혹은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 부모님들은 직장에, 돈의 문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말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듯 우리네 삶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나눔질문

1. 오늘 나를 휘어잡고 있는 손아귀는 무엇입니까?
2. 혹시 내가 누군가를 휘어잡는 손아귀는 아닙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에스라 6-10장

최선인 듯, 최선 아닌(스 10:1-4)

바사 아닥사스다 왕은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조서의 내용은 에스라와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들에게는 제사를 드릴 예물과 은금까지 허락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치할 재판관과 법관을 세울 인사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한 에스라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부여되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레위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 후에는 아와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며, 성전에 바칠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그 후에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 즉, 다른 신과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과 섞여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은 신명기 때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크게 실망하여 속옷과 겹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회개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들어와서 에스라는 이혼을 명령했고, 이방인들과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전염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라기와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면 이혼은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씻어낼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 없었기에,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전염되어 멸망하는 길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인 그들에게는, 뼈를 깎는 '끊어냄(이혼)'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에스라와 모세가 써준 이혼 증서는 에스라의 때처럼 차선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퍼질 것을 염려한 취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차선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최선의 것을 꿈꾸고 이를 소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될 뻔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시어 진짜 최선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질문

1. 끝까지 품어내기보다, 쉽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차선'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2. 나를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처럼, '최선'을 다해 다시 안아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1-6장

녹을 포기한 총독, 생명을 내어주신 왕(느 5:8,14)

에스라를 보내주었던 바사 왕 아닥사스다 때에 느헤미야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총독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 소식 없이 예루살렘을 찾아갔습니다. 몇 사람을 데리고 밤새 성벽을 조사했습니다. 성벽은 전해 들은 것처럼 불타서 무너졌고, 그곳에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왕이 전해준 말씀을 그들의 귀에 넣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제공했습니다.

성벽 재건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군사를 동원하여 성벽 재건하는 일을 훼방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힘을 다해 무장을 한 채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부도 곱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각기 형제들로부터 높은 이자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바사에게 보내야 하는 세금으로 힘들었는데, 같은 형제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 민심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고리대금은 율법적으로도 맞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5장과 신명기 23장에서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휘황찬란한 성벽이 지어진다 할지라도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아무 문제없는 척 하지만 그 속은 완전히 썩은 것이죠.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한 말씀을 주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딤후 3:5).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본 느헤미야는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자신을 희생합니다. 12년 동안 총독으로서 받은 녹을 성벽과 백성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5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타인을 살린 한 분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림으로 죄인을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를 드리실 수 있었으며,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찬양합시다!

묵상질문

1.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2.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이웃을 위해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는 나의 '권리'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7-13장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느 13:28)

기나긴 포로기를 마치고 그토록 바라던 성전과 성벽이 완벽하게 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낭독하고, 진심으로 죄를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로 직접 서명했습니다. 느헤미야 10장에는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들의 과거의 영광이 다시 재현되는,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멋진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의 왕궁에 다녀온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가로챘습니다. 안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심지어 에스라 때 저질렀던 통혼을 또다시 행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율법 앞에서 회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감격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던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서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나의 유익을 위해 손과 발을 뻗지는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스룹바벨), 종교 개혁(에스라), 성벽 건축(느헤미야)은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렘과 소망을 품게 합니다. 일의 되어짐을 바라보며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이전의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각 스토리는 결국 부정적인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의 노력과 제도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줍니다

죄인을 위해 필요한 것은 멋진 성전이나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해 줄 틈 없는 율법도 아닙니다. 죄인에 필요한 것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친히 성전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공중 권세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력과 열심, 율법 등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주일의 결단이 무색하게, 월요일이 되면 다시 타협하고 마는 내 삶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2. 나의 알팍한 '결심'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Esther 에스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스더 읽기



에스더 1-5장

이때를 위함(에 4:13-16)

아하수에로 왕 때 와스디라는 왕비가 왕의 명령에 불복하여 폐위를 당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왕과 신하들은 왕비의 행동이 왕과 신하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 결과 왕비는 더 이상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가정은 남편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왕의 측근들은 아리따운 여성을 찾기 위하여 각 지방에 관리들을 뽑았습니다. 그때에 에스더도 아리따운 여성으로 선발되어 도성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궁녀를 담당하는 헤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들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를 시종들게 할 일곱 명의 궁녀와 그들이 함께 머물 아름다운 처소까지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는 그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받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헤개로부터 특별 관리를 받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뇌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결국 그녀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추후에 에스더 3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개는 왕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왕이 부를 때에만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모르드개는 에스더를 향해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며 왕 앞에 나아갔고 결국 에스더의 용감하고 희생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절체정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의 희생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보다 더 대단한 희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입니다. 에스더는 확정적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도는 확정적 희생이었습니다. 죽음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주님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작은 순종조차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2. 나를 위해 '확정된 죽음'을 택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있습니까?





에스더 6-10장

반전의 십자가(에 5:14, 6:11)

이스라엘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배경의 중심에는 하만과 모르드개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하만은 자신에게 꿇어 절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개인적인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 부르는데, 그는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피곤하고 지친 자들의 뒤를 비겁하게 기습했던 이스라엘의 철천지원수 '아말렉'의 후예였습니다. 또한 모르드개는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과거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하지 못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같은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즉 모르드개에게 하만은 단순한 정치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상징이었고, 그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조상들의 영적 실패를 반복하는 우상 숭배와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 오십 규빗 높이의 거대한 나무를 세웠습니다. 악인이 승리할 것만 같던 절망적인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셨고, 밤새 역대 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과거 모르드개가 왕의 암살 음모를 막아냈던 그 기록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음 날 하만은 자신이 입으려던 왕복을 모르드개에게 입히고, 자신이 타려던 말에 그를 태우며 온 성읍을 도는 굴욕을 맞습니다. 나아가 에스더의 지혜를 통해 하만의 흥계가 모두 탄로 나고, 그는 자기가 모르드개를 죽이려 세웠던 그 거대한 나무에 자신이 매달리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모르드개를 무릎 꿇리고 저 높은 나무에 매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악한 사탄의 권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못 박으며, 마침내 자신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나팔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만보다 훨씬 더 큰 확신에 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끔찍한 사형 틀이었던 십자가를 도리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위대한 승리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은 하나님의 완벽한 최종 승리였습니다.

사랑하는 평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결코 악에게 무릎 꿇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최종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십자가의 역전을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당장의 두려움이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 앞에 무릎 꿇고 있지는 않습니까?
2. 십자가 너머 '부활의 완벽한 승리'가 오늘을 버티고 인내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우리 가정의 치료자(스 10:1-4)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용납과 인내, 결국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모세와 에스라의 때에는 죄로 인한 아픈 부위를 도려내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나은 방법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얼마나 끔찍한 이들이라 할지라도 쳐내고, 도려내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정의 어떤 아픔도 용납하고 인내함으로 결국 주님의 사랑을 증명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가족의 허물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2. 우리 가정의 중심은 내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되고 계십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Job 욕기



그리스도 중심으로 에스터 읽기



욥기 1-7장

생사화복(욥 2:8-13)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 자신이 받은 물질에 기반한 것일 뿐, 하나님을 마음으로 부터 경외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욥의 재산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이번엔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이 걸린 이 종기는 나병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는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재 가운데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재나 쓰레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종기로 인하여 사람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욥의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난 종기가 너무 가려운 나머지 욥은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습니다. 그가 재 가운데 앉아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가장 가슴 아프게 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과거 욥과 그의 가족이 늘 주님께 제사드리며 예배드린 모습으로 보았을 때 그의 아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다 잃고, 자식마저 다 잃은 슬픔은 욥이 당한 것이나 그의 아내가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남편이 온몸에 나병이 걸려 질그릇으로 그것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원망이 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차라리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였습니다. 욥의 비참함이 너무 심하여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여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그의 비참함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려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는 그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이레 동안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욥의 그 큰 고통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말도 욥에게 위로를 줄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한 후 죽으라고 한 아내의 원망에 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말하며 입술로 범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 대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생사는 살고 죽는 일이며, 화복은 좋지 않은 일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주관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주권자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욥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게는 오직 생과 복만을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묵상질문

1. 생과 복 뿐만 아니라 사와 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 내 인생의 사와 화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욥기 8-14장

항상 예상을 뛰어넘으시는 분(욥 12:4-6)

욥은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의롭고 온전하다고 인정받았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고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평안하였기에 그의 인생 가운데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5절). 그러나 이러한 재앙은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라고 느끼고 있을 욥의 친구들에게도 이는 예외가 아닙니다. 그들도 언제든지 재앙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꼭 이러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러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보상론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정의와 지혜에 따르면 강도들의 장막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6절). 이처럼 하나님은 꼭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모든 권능과 주권이 있으시기에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반응하시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그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인정은 인간이 생각하는 선한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악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포함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사람은 주권자에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악한 일마저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계획 속에 한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혜로웠고 덕이 많았으며 부유하였고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느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정한 패턴에 관해서 제한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고 여기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뇌 속에서 파악이 가능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그분의 주권은 인정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묵상질문

1. 혹시 내 인생 가운데는 그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2.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욥기 15-21장

인정하기 싫은 현실(욥 21:7-16)

욥은 그의 친구들에게 악한 자들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사실에 치가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애써 부정하려야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서 빌닷은 악인의 힘은 결국 쇠하고 질병이 찾아올 것이며 사망의 공포가 그를 사로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에 반박하며 악한 사람도 얼마든지 강하고 오래 살아남기만 하더라도 조롱합니다(7절). 또한 빌닷은 악인은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그의 집은 망해서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이 보기엔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의 집은 평안하기만 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악인은 물질적으로 풍부할 수 있으나 마음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직하고 진실하며 때로는 손해 보면서까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억울하므로 적어도 악인의 마음은 불안 가운데 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그들의 삶은 평안하기만 합니다. 욥이 보기에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잘만 낳았습니다(10절). 유목민 사회에서 가축들의 생식이 번성하고 낙태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기복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을 축복한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악인의 집에는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자녀들은 춤을 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를 불며 즐깁니다(12절). 그렇게 그들은 그들의 날을 질병 없이 행복하게 오래 즐기다가 아무 고통 없이 생을 마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며 기도의 능력과 효험도 전혀 부정하는 이들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잘만 살지 않냐고 욥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들과 같이 자신도 악하게 살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분명 악한 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의롭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약화되는 것이 보통인데 욥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오직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롭게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이는 결코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나 이는 틀렸습니다. 욥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였던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 편에 남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한 동기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동기는 무엇입니까?
2. 혹시 악인의 행통함을 바라볼 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욥기 22-28장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 23:8-10)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모두 그의 죄악에서 비롯된 심판이라고 아무 근거도 없이 단정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이 이 정도로까지 욥을 징계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욥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고 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다 경청해 주시고 지금 내리시고 있는 심판을 돌이킬 것이라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그를 지금 만나주실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을 욥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처럼 표현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8-9절)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지금 나의 모든 문제가 해답을 얻고 해결함을 받을 텐데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깨달음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욥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10절) 욥은 절망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그분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확신한 한 가지는 바로, 비록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단련하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계라고 단정 지었지만 욥은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련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순금이 정제와 단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자신도 이 어려움을 인내함으로 잘 견뎌내어 하나님 앞에 더욱 굳세게 서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욥처럼 어떠한 억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난을 통해 믿음이 순금처럼 단련되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간절한 부르짖음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2.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욥기 29-35장

끝까지 의지함(욥 30:20-24)

욥은 자신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치셨으며, 자신을 고난 가운데 힘껏 던지셨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었으며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생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함께 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 그에게 펼쳐졌습니다. 그의 삶은 온갖 걱정과 근심과 원망으로 가득했으며 평안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환난이 찾아왔으며, 그의 삶은 도움을 베푸는 삶에서 이제는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처량한 신세가 된 욥은 자신의 형편을 마치 사람이 사는 곳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는 사람처럼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욥은 중요한 표현이 담긴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며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24절). 그는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는 길을 택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굳건히 인내하였습니다.

나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으며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환란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어려움의 해결 역시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묵상질문

1.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2. 나는 세상과 하나님 중 어디를 더 많이 바라보며 지내고 있습니까?





오뚝이 신앙(욘 2:8-10)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정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나는 일어섭니다" 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아요!



대표기도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기뻐하지 않게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나눔

오뚝이는 넘어지면 어떻게 하죠? 곧바로 일어나요. 이쪽으로 넘어져도 일어나고, 저쪽으로 넘어져도 일어나요. 왜 오뚝이는 넘어져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뚝이 몸 안에는 오뚝이가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추가 있어요. 이 중심의 추를 의지해서 오뚝이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오뚝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뚝이가 중심의 추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면,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욘은 슬프고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해요.

나눔질문

1.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갔던 시간이 있었나요?
2. 기쁨과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과 고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나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욥기 36-42장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1-6)

욥은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철저히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욥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응답을 들은 욥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특히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당대에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고백하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무죄함을 변호하였고, 하나님께 고난에 대한 정당성을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욥기 38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욥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없이 작은 존재가 욥이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피조물로서는 결코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위대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욥은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간의 유한함과 무지함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함과 죄된 모습에 대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6절) 그렇게 그는 고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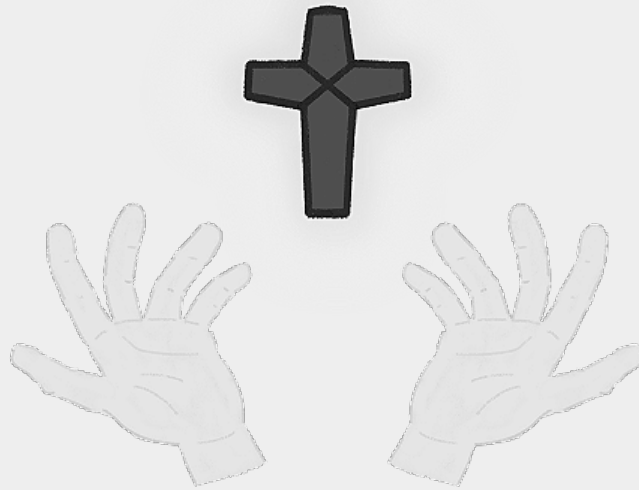
우리는 욥기를 통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인간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셋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죄 없음을 증명할 수 있으셨던 예수님께서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음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침묵하시며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에 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묵상질문

1.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2. 개인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침묵, 기도, 말씀 등)



Psalms 시편



그리스도 중심으로 시편 읽기



시편 1-6편

복 있는 사람(시 1:1-6)

오늘 본문 속에는 의인과 악인이라는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악인은 동일하게 악인으로 표현되지만, 의인은 '복 있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성경에서 악인들의 길은 넓은 길이며, 많은 사람이 쫓는 길이며, 달콤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좁고 험착한 길이며,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고 험착한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악인들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즉, 악인들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며, 그들의 결국은 견디지 못할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길은 세상은 인정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편에 다시는 서지 못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십니까? 지금 당장은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인정해 주는 길을 가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고난처럼 느껴지고, 좁고 험착하여 찾는 자가 적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씀 따라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생수의 강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때를 따라 영적인 영양분을 주셔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며,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의인의 길에 올라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질문

1. 세상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 가운데 무엇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십니까?
2.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내가 즐거워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편 7-12편

사람이 무엇이기에(시 8:4-9)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람의 연약함 속에 담긴 존귀함을 깨닫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달과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앞에 한 없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3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십니다.(2절)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자신을 돌보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고백합니다(4절). 우리는 다윗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5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심겨 있기에,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성취와 성공과 같은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 속에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더욱 찬란하게 빛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존귀함이 우리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고전 10:31)

그러나 죄로 가득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잃어버리고,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시편 8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고 십자가 죽음으로 이 세상의 통치와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빛내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를 닮아 청지기의 삶으로,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 이미 존귀한 자로서, 나의 어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자신의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2.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3-18편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시 16:8-11)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라(2절) 고백합니다. 그랬기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며(1절),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라고 고백(5절)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날마다 몸부림쳤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신 앞에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곁에 계심을 믿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8절)

더 나아가,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쁨'(9절)과 확신에 찬 '평안'(10절)과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11절)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데, 세상은 자신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자신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삶과,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을 나의 앞에 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힘과 어떠함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죽을 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확신에 찬 평안과 죽음을 넘어서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9-24편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 23:4-6)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되심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목자 되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든 자신과 함께 하시고,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신을 쫓아올 것을 확신하기 때 문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쓰러졌던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고,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신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목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지날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도구들로서, 맹수와 같은 대적들로부터, 그리고 험난한 길 가운데에서도 양과 같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우리를 둘러 진을 친다 할지라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려움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소망을 안겨줍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쫓아 오기에 우리는 안전하고, 참된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여호와와 의 집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다윗의 사모함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찾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묵상질문

1.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2.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시며,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시 23:1-6)

예배 시작 전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성경을 준비해주세요
 믿음의 가장은 예배를 위해 먼저 묵상기도해 주세요

찬양

온 가족이 드리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찬양은 "순종의 고백"입니다.
 유튜브 찬양링크를 통해 함께 부르시면 더 좋습니다!



어린이 찬양



어노인팅 찬양

대표기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
 을 선하심으로 붙잡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목자 되시는 하
 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족함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나눔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요,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살아가긴 했지만,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도망치며 살기도 하고, 도망치다가 적군의
 기지에 들어갔다가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
 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
 지 자녀에게 설명 해주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
 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목자이심을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눔질문

1. 최근에 마음이나 상황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나요? 어떻게 했었나요?
2.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가정예배를 마칩니다.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어려워 한다면 주기도문 찬양을 틀어주세요!



COME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평안교회 오세요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입니다.

Outward focus

나보다 남을 섬기며
선교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Mature together

성도들이 말씀의 교제를 통해 함
께 성숙해가는 교회입니다.

Extended family

세대간의 화합과 신앙의 대잇기를
열망하는 대가족 교회입니다.

